

최근 멕시코 경제 동향 분석 ('09.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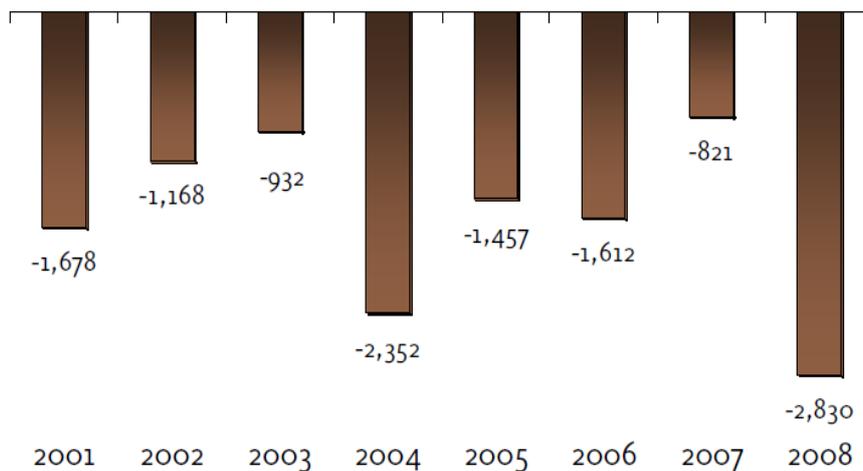
1. 최근 경제 현황

□ 무역수지

- '08년 11월중 멕시코 무역수지는 2,830백만 달러의 적자를 시현했으며,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적자규모는 13,968백만 달러에 이룸
- 11월중 수출은 20,405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6.1%가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원유수출가격 급락으로 인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52.4%가 감소한데 기인(비석유제품 수출은 7% 감소)
- 한편, 수입은 23,325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은 각각 9.2% 및 8.5%가 감소했으나, 자본재는 2.7%가 증가

연도별 매 11월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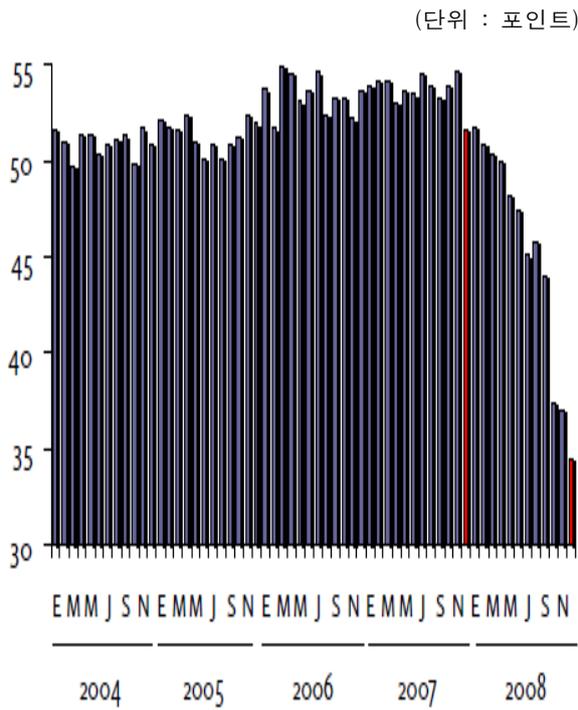
□ 제조업 지수

- '08년 12월말 현재 기업의 투자 및 향후 기업 및 국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제조업 관련지수 중 생산자신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7.1p 하락한 34.5p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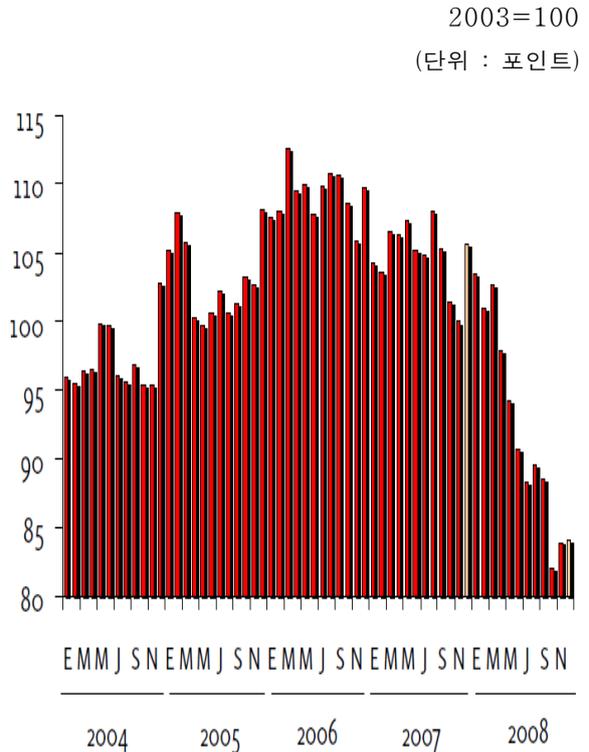
□ 소비자 신뢰지수

- 멕시코은행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8년 12월말 현재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4%나 하락한 84.1p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 이후 부터 급격한 하락이 진행중

생산자신뢰지수 추이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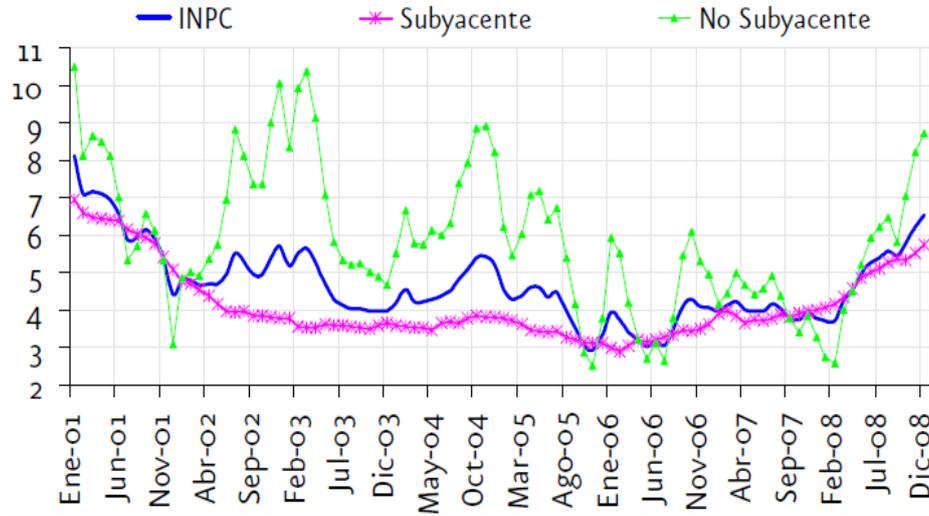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물가상승률

- '08년 12월중 멕시코 물가는 0.69%가 상승했으며, 1월~12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6.53%를 기록

월별 물가상승률 추이(2001년~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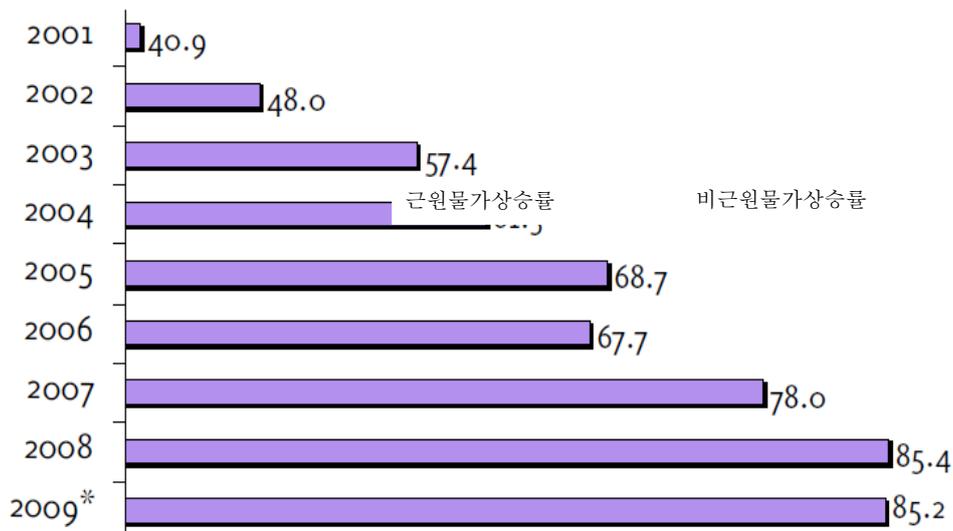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외환보유고

- '08년 12월말 현재 멕시코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85,441백만 달러로 '07년 (77,991백만 달러) 대비 7,196백만이 증가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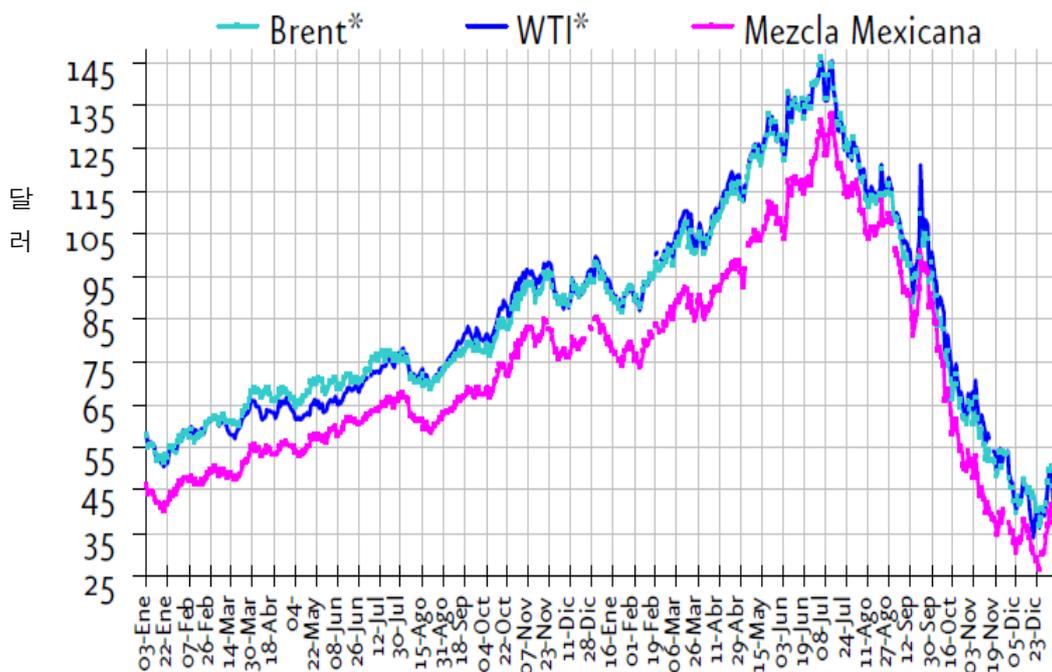
* 2009년은 1월 2일 현재 기준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원유수출가격

- 1월 9일 현재 멕시코산 원유의 2월물 수출가격은 배럴당 36.31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약 6% 상승
- 참고로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의 가격은 각각 40.83달러 및 44.42달러를 기록

원유수출가격동향(배럴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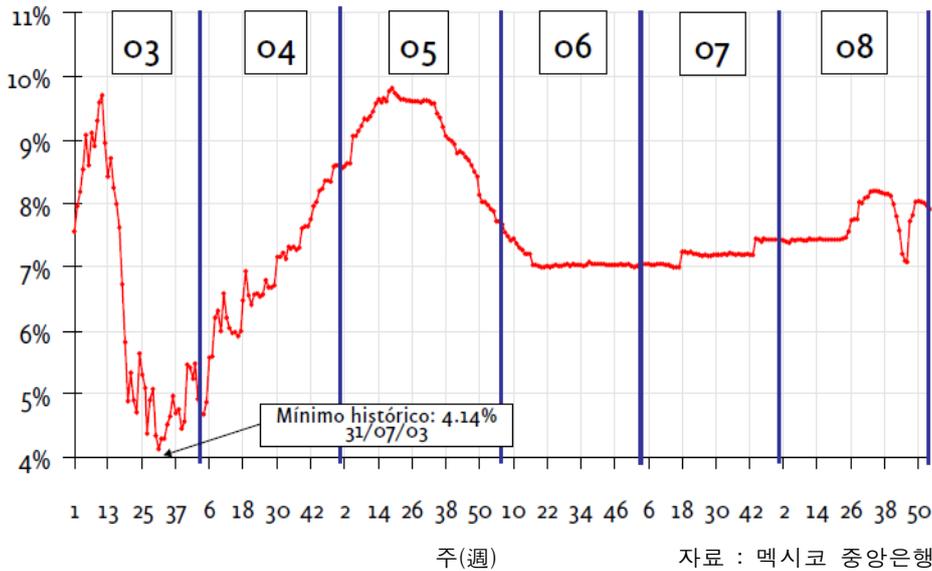
자료 : PEMEX

□ 금 리

- 1월 6일 기준 멕시코 기준금리(CETES) 28일물, 90일물 및 175일물은 전주대비 각각 6bp(7.91%), 1bp(8.14%), 12bp(7.95%)가 하락하는 등 금리 인하세 지속
- 한편, 5년 및 10년 만기 채권은 전주대비 58bp(7.70%) 및 64bp(3.80%)가 하락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CETES 28일물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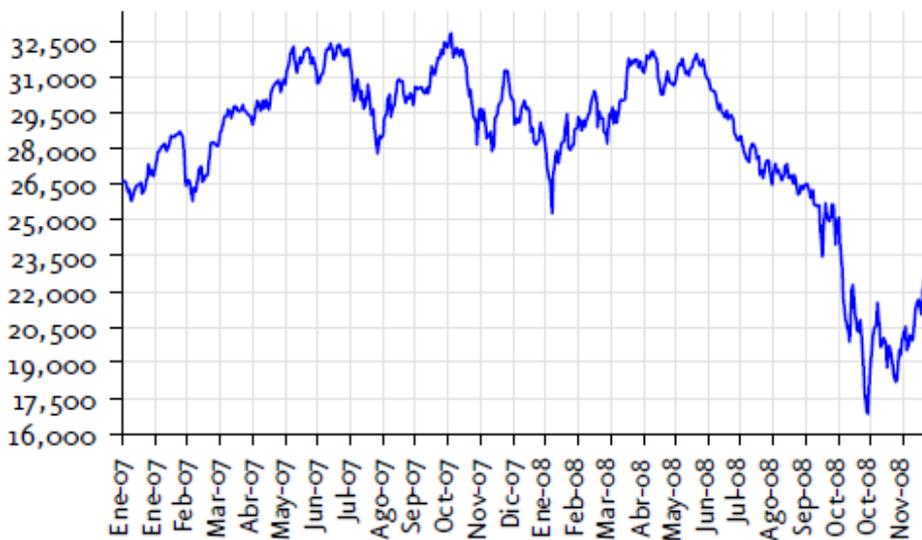


□ 주식시장

- 1월 9일 기준 멕시코 주식시장 IPyC지수는 전주대비 6.49%가 하락한 21,741.2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대비 폐소화기준으로는 2.86%, 달러화 기준으로는 1.92% 하락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

(단위 : 포인트)



자료 : 멕시코 증권업협회

□ 환 율

- 1월 9일자 멕시코 페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3.7008P/US\$로 전주 대비 6.70 centabo가 하락했으며, 2009년 연평균 환율은 13.5472P/US\$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2007~2009)

(단위 : 페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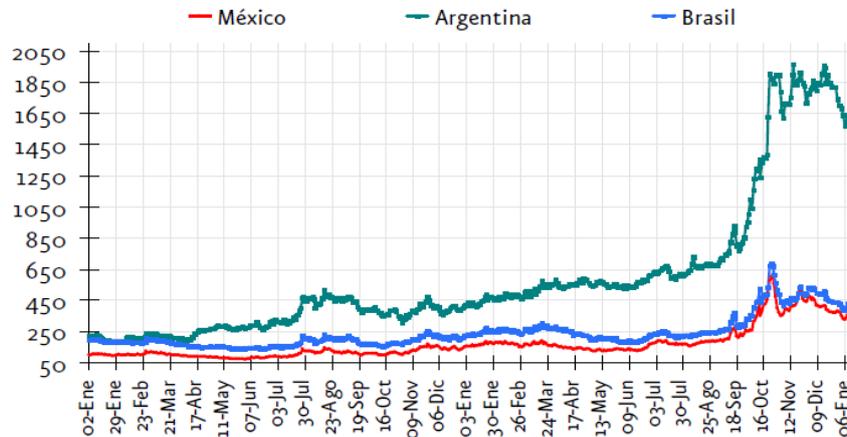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국가위험도

- 1월 9일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개도국 위험지수(EMBI+)는 전주대비 3bp 소폭 상승한 335p를 기록. 한편 아르헨티나는 1,639p로 42bp 감소했으며, 브라질은 18bp 상승한 423p를 기록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EMBI+)

(단위 : basis point)



자료 : JP Morgan

2. 기관별 경제 전망

□ IXE은행 멕시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3.70%로 수정

- 최근 정부의 석유판매가격 동결 조치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당초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90%에서 3.70%로 조정
- 아울러 정부의 전기사용료 인하 조치는 생산자 물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감소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지는 않으며, 현재 지속되고 있는 환율 불안 요인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Actinver 증권사 중앙은행 금리 인하 전망

- 금년 3, 4월까지 멕시코 중앙은행이 물가 인상 조짐이 보이면 한차례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깔데론 정부가 전기세 인하, 휘발유 및 LP가스 가격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 디젤유 가격은 그대로 두고 있어 인하 요인이 소비자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중앙은행

- 기에르모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깔데론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갈 것으로 전망
- 또한 멕시코의 현 경제상황은 국제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나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예상되는 경기 위축에 대비해 이미 완화된 통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